

'문화가 있는 날'을 더욱더 알차게

도내 전통예술기관들 협업 교류

6월~9월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북지역 전통공연예술기관과 협업교류 공연을 한다.

이는 국립무형유산원과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연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후 7시 30분 국립무형유산원 열수마루 공연장에서 열리며, 행사에는 6월 국립민속국악원, 7월 전라북도립국악원, 8월 정읍시립 정읍국악단, 9월 익산시립예술단이 각기 참여한다.

오는 28일에는 신라놀음을 바탕으로 한 국립민속국악원의〈판소리·창극, 오라가타이〉 펼쳐진다. 이는 판소리와 창극을 현대적인 해석과 입체적인 무

대로 선보이는 새로운 판타지 창극으로 무대에서는 '홍부가'의 놀부 바타는 대목과 '심청가'의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7월 27일 공연은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와 나라를 두루 살피는 순행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왕의 순행〉으로 꾸며진다. 이 공연은 왕의 순행 과정에서 행해지던 의례를 무대로 옮긴 것으로 예와 격을 갖추어 연향을 준비하였던 당시의 모습과 연회를 궁중무용인 정재와 한국 창작무용으로 담아낸다.

8월 31일에는 풍요롭고 인심 넘치는 샘고을 정읍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들려주는 정읍시립 정읍국악단의 〈희희락락〉이 마련된다. 정읍을 대표하는 백제가요 '정읍사'와 국악합주곡 '수제전' 연주 등을 통해 정읍 사람들의



국립민속국악원 공연 모습.

멋과 흥을 '악·가·무'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작품으로 풀어낸다.

마지막 공연인 9월 28일에는 익산시립예술단의 〈풍속도〉로 관객들과 만난다. 신명 나는 춤과 흥겨운 풍물공연을

통해 지역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고유의 문화를 예술로 녹여낸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go.kr)을 방문하거나 280-1500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민예총, 내일 초록바위진혼제 개최

제1회 초록바위진혼제가 29일 오후6시 전주 곤지산 초록바위 정상(완산도서관 근처)에서 열린다.

전주민예총이 주관·주최하고 전수시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전주 지역의 오랜 아픔과 역사를 간직한 초록바위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가 열리는 초록바위는 조선시대 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던 곳으로 김개남 등 동학교도들과 전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한 곳이다. 이곳은 완산동에서 좁은목으로 통하는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일부 잘라져 그 위치가 훼손되었으나 그 후 초록바위 길 건너편 전주천변에 초록바위 성지를 세웠다.

이날 행사는 고시례로 시작, 진혼제 형식을 바탕으로 네 개의 거리로 풀어낸 제의의식 등 음악공연이 펼쳐진다. 민예총은 이를 통해 죽어간 영혼들을 위로하고 전주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을 되살릴 예정이다. 초록바위진혼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춘향미술대전 입상 서예·문인화 전시

올해로 30회를 맞는 전국춘향미술대전에 입상한 작품들이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남원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더위와 장마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국춘향미술대전은 전국각지에서 총 330여점의 작품들이 출품되어 전국규모의 미술대전으로서 탄탄한 자리매김을 하였다.

심사는 지난 19일에 이루어졌으며 춘향미술대전의 연례에 걸맞은 심도 깊은 심사를 통하여 330여점의 작품들 가운데 대상4점, 우수상 9점, 장려상 10점, 특별상 9점, 특선 94점, 입선 138점 총 264점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에는 ▲김윤민씨의 '대나무' (문인화) ▲서유경씨의 '신독, 회문' (서예), ▲임복실씨의 '기다림' (공예), ▲박지영씨의 '화연' (서양화)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편현정, 박순자, 서민수, 김지훈, 오현주, 임여진, 김선임, 김영순, 이근순 출품자에게 돌아갔다.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1부 (조소, 공예, 한국화, 서양화),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2부 (서예, 문인화)를 통하여 주목받은 시상작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초대 작가와 추천작가의 작품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오는 7월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시상식으로 제30회 전국춘향미술대전은 막을 내리게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K팝 빅뱅·딘 좋아해요”

대만 '첼로 요정' 오우양나나 데뷔 앨범 '15' 국내 발매 '뜨위보다 예쁜' 미모 화제

“예쁘다는 칭찬에 대해서는... 모든 여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대만의 첼로 요정' 오우양나나(16·사진)의 데뷔 앨범 '15'가 국내 발매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이 후끈 달아올랐다. 같은 대만 출신의 비슷한 포레이자 역시 미모로 이름난 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17)보다 '예쁘다'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오우양나나는 모 언론사와 e-메일 인터뷰에서 정작 "외모에 주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초연했다.

첼리스트지만 빼어난 외모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영화 '베이징 러브 스토리' (2014)에서 주연을 맡았다. 중국의 인기 배우 천둥과 함께 출연한 드라마 '에스! 미스터. 패션' 중국 방송을 앞두고 있다. 현지 인기 시리즈 영화 '타이니 타임스(Tiny Times)'의 감독인 귀정밍이 제작했다.

"연기는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연기하는 일이 즐겁고 더 잘하고 싶죠" 영화 '파풍' (2015)에서는 한류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최시원은 정말 훌륭하고 쎈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했다.

한류스타 박신혜와도 인연이 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패션위크에 중국 대표로 초대받았을 당시 박신혜와 나란히 앉아 패션쇼를 감상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신혜에 대해서는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K팝에도 관심이 많다는 그녀는 그룹 빅뱅과 듀오 '악동뮤지션', 싱어송라이터 딘을 좋아하는 기수로 꼽으며 "많이 많이 좋아해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몇차례 방문했는데 "이제 더 많은 기회가 생겨서 자주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6세에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오우양나나는 외모뿐 아니라 실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클래식 유망주다. 열살때 자신 공연에 참가하며 첼리스트의 길을 걷기 시작

했다. 2011년 미국 국제 첼로 협회 여름 페스티벌에 초대받았다. 2013년 타이베이 국립 콘서트홀에서 솔로 리사이틀 공연을 열었다.

특히 13세 때 스타 피아니스트 람랑과 유자왕 출신 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명문 음악대학인 커티스 음악대학에 전액장학금으로 입학한 영재다. 15세가 된 해인 2015년 12월18일 데뷔 앨범 '15'를 중화권에서 먼저 발매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무대 위 연주가 즐거워서 첼리스트가 되고 싶었죠. 새로운 음악을 연습하고 연주할 때면 목표를 이룬 것 같아서 즐거워요. 성취감도 느끼고요. 이런 감정들로 인해 계속 첼로를 연주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중화권 연인이다. 가족 대부분이 중화권 유명인사다. 아버지는 대만 시의원 오우양롱, 어머니는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배우 푸권이다. 고모 오우양페이페이는 대만과 일본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언니인 오우양나나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첼로는 이미 제 삶의 일부예요. 앨범도 해마다 발매하려고 해요. 스케줄이 항상 가득 차 있더라도 첼로 연습하는건 빼먹지 않아요. 그래야 연기와 첼리스트 둘 다를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장 첼리스트 대비트 게링가스를 존경한다는 오우양나나는 "앞으로 세계적인 영화음악가 히사이시 조와 협업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이우환 작 내일 추가 감정 '물감·기법 신중히 볼 것'

이 작가 측 '추가 감정대 위작 여부 입장 밝히겠다'

이우환(80) 작가가 위작(僞作) 논란이 있는 작품에 대한 감정을 보류했다. 작품에 쓰인 물감과 기법에 대한 보다 신중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이 작가는 오전 9시50분께 서울경향청 지하법외수사대를 찾아 작가 감정을 진술했다. 작품 감정을 마친 이 작가는 "모래(29일) 다시 올 것"이란 말을 남기고 경찰서를 떠났다.

이 작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순용 변호사는 "물감과 기법에 대한 부분을 봤다"며 "(이 작가가) 집에서 확인을 한 뒤 다시 경찰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감정을 마친 뒤 이 작가 측은 위작 논란이 있는 작품 13점 가운데 실제로 진품이 아닌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단을 보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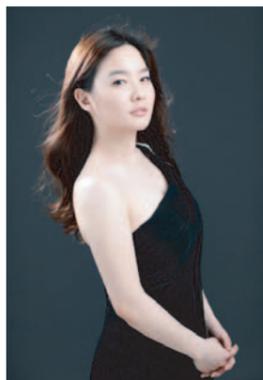
최 변호사는 "(논란이 있는) 그림 이미지를 (경찰에서) 받았다"며 "같은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것이 아니고 물감도 본인이 쓰지 않은 물감일 수 있어, 위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작가 측은 작가 감정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 3점에 대해서도 위작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작 총액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현모(66)씨가 자신이 그렸다고 진술한 작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초 이 작가 측은 자신이 봤던 작품 가운데서는 위작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김민근 기자

피아니스트 김현정 센다이콩쿠르 1위



피아니스트 김현정(24·사진)이 '2016 센다이국제음악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은 최근 일본 센다이에서 진행된 이 콩쿠르 피아노 부문에서 김현정이 우승을 차지했고, 신창웅(21)이 5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현정은 상금 300만엔(약 3440만원)과 함께 음반 레코딩 기회를 얻게 됐다. 신창웅은 상금 70만엔(802만원)을 받았다.

김현정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조기 입학해 강충모를 사사했다. 이후 피바디 음악원에서 보리스 슬러츠키를 사사하며 전문 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현재 동음악원에서 문용희 사사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민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6월 28일)

<p>▷쥐띠 48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 60년생: 늦게 움직이면 헛기게 되니 부지런히 움직여라. 72년생: 작은 일은 가능하나 큰일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상황을 잘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p>	<p>▷소띠 49년생: 매사 큰 움직임을 삼가고 때를 기다려라.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이득을 얻기는 어렵다.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p>	<p>▷호랑이띠 50년생: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라. 62년생: 가뭄에 시달리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급격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 귀인이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험뜯게 하는 소리가 도음이 되는 운.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를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 88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p>	<p>▷뱀띠 5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른다.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라.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p>	<p>▷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 91년생: 변동하면 형통하고 좋지만 민생이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8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니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p>	<p>▷닭띠 57년생: 볼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드니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제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천우신조가 있으니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p>	<p>▷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목이 많이 일어 잘 풀리지 않으니 주의하라.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니는 운이다.</p>	<p>▷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고 머물면 손해가 따른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는 일이 틀어질 수 있음이니 조심하라. 83년생: 매사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p>